

민주 “檢, 이재명 망신주기·갑질수사 일관”…李는 숨고르기

野 “범죄자로 낙인찍기 위해 시간끌기로 일관” 의원들도 비판 이어가…“인동초 정신 되새겨야” 2차 출석 요구도…“당에선 불응 분위기 지배적”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관한 이재명 당 대표의 소환조사와 관련해 검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공식 일정은 잡지 않은 채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추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적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가 ‘정적 제거용 조작 수사’임에도 성실히 조사에 응했지만, 검찰은 처음부터 끝까지 편파·불공정 수사, 인권침해·망신주기 갑질 수사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조작된 내용에 근거해 원하는 답을 얻고자 반복적으로 질문한 것 아닌가”라며 “검찰이 기획한 일정대로 이재명 대표를 하루 더 포토라인에 세워 범죄자로 낙인

찍기 위해 시간 끌기로 일관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정치수사를 하고 있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 대표의 검찰조사에 동행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지금 우리가 집을 뺄고 계관을 던져야 할 담배락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검찰이지, 책상에 앉아 내부를 향한 분열의 침팬이 아니다”고 적었다.

같은 당의 권인숙 의원은 “검찰독재시대, 너무 요란하고 현란해 광기와 야만의 정치행보와 탄압 지금 잘 보이지 않을지 모른다. 잘보이고 들리게 하고 잘 싸워나가는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활동을 계획 중인 우원식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모욕과 망신주기로 점철된 검찰권 남용이 끝이 없다. 증거가 아닌 제2, 제3의 논두렁 시계에 버금가는 여론전과 선전선동이 1년 내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여당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범죄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현장을 지켜보면서도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고, 야당을 짜놓은 프레임 안으로 몰아세우기에 바쁘다”며 “엄혹한 겨울을 이겨낸 김대중 대통령의 ‘인동초정신’을 되새기며 시련을 겪더라도 여사는 끝내 전진한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첨언했다.

한편, 이 대표는 검찰조사를 마친 뒤 이날 공식 일정은 잡지 않은 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2차 출석을 요구한 가운데 이 대표는 추후 대응 방안을 민주당 지도부 및 변호인들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에 관한 2차 소환조사에 응할 것인지, 서면조사로 대체할 가능



28일 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환조사를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성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아직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단계”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당내 분위기인데 전날 검찰의 무도하고 무리한

조사로 다들 격앙돼 있는 상황이다. (2차 조사에) 불응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최이슬기자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농식품바우처 전국 확대’ 공감대 조성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농식품바우처 사업 전국 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이 전국 17개 시도 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광역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의에 참석해, “2020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범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해야 하며, 대상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최근 울산 머큐어앰버서더에서 2023년도 제1차 임시회를 열어 주요업무 등 현안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고, 전남도의회에서 제출한 ‘농식품바우처 사업 전국 확대 촉구 건의안’을 원안가결하고 국회와 소관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국 31개 시·군·구에서 ‘2023년 농식품바

우처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18곳이 선정되었다. 그 중 전남도는 해남군, 장성군, 강진군 3개 군이 선정돼 국비 16억 원을 확보했다.

서동욱 의장은 “식품 구매력이 충분하지 않은 저소득층은 식생활 관련 주요 질병에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며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조속히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 의장은 “농식품바우처 사업이 본사업으로 정착되면, 저소득 취약계층 영양불균형 해소는 물론 도내 농산물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국내산 신선채소, 과일, 육류 등 영양 개선을 위해 1인 가구 기준 월 4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나경원 “전대서 특별한 역할 할 일 없어”

“특별한 정치적 의미 없어…언론 노고에 감사하는 자리”



국민의힘 당 대표 불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은 29일 “전당대회에서 특별한 역할을 할 일은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국민 의회 출입기자들과 1시간 가량 오찬을 가졌다. 지난 25일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 첫 공개 행보다.

나 전 의원은 오찬 직후 행사 취지에 대해 “그동안 저를 취재하느라 애써준 언론인들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오찬하고 편안한 얘기를 나눴다”며 “특별한 정치적 의미는 없고 편안한 대화를 나누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당권주자들이 일제히 ‘러브콜’을 보내면서 전당대회 역할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 “이미 지난 불출마 기자회견 때 말했다”며 “더 이상 드릴 말씀 없다”고 했다.

김기현·안철수 전 의원이 자신과 연락을 많이 하고 있다며 연대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 관련해서는 “많은 분께 연락은 오는 중”이라며 “지금은 아직 제 생각을 정리한 것도 아니고 말한 것처럼 전당대회에서 특별한 역할을 할 일은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